

# 내년부터 달라진다 농림수산계 교육체제

농림수산대학 지역별 특성화, 집중지원  
 농업전문대학 설립, 12개 지역자양성고 지정  
 농림수산부 지역농업발전센터로 육성

##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업의 국제화와 농림어업 취업인력의 노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젊은 전문 농업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전문농업인력은 ①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영농에 종사하고, ②기술 집약적인 농업경영을 담당하고, ③일정규모 이상의 영농기반이 있고 상당한 농업소득을 올리며, ④의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다.

전문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첫째,** 우선 영농어업에 종사하고자하는 의욕을 갖춘 자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여건의 어려움으로 영농어업에 종사하고자하는 의욕을 갖춘 자가 적은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 구조개선을 통하여 농업여건이 좋아짐을 고려하면 언젠가라도 희망자는 증가할 것이다.

**둘째,** 이들을 충분하게 교육 훈련시켜야 한다. 전문농업인력의 공급 형태는 신규 취농과 유턴의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신규 취농의 경우는 다시 학교를 졸업하고 즉시 취농하는 것과 학교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턴의 경우는 비농업 분야에 종사하다가 영농으로 되돌아오는 경우이다. 가장 대표적인 신규 취농 형태의 하나는 농가의 자녀로서, 농업계 학교교육을 받는 경우이다.

이런 면에서 농업계 학교교육은 전문농업인력의 교육훈련의 가장 중심이 된다.

**셋째,** 안정적으로 영농어업에 정착하게 하려면 훈련된 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 정부에서도 농어민후계자, 가족단위 전업농, 선도농어가 육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농업인력 양성의 주된 루트인 농업계 학교가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못하고 있다. 농어민 후계자중 농수산계 학교 출신은 25%정도이며 4년제 농대 출신은 불과 2%미만으로 경영 감각을 갖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의 흡수가 극히 부진하다. 농고생은 줄고 농대생은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대학에 가고 보자는 심리로 농대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농림수산계 각급 학교 교육의 개편이 필요함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농림수산계 고교 교사의 70%이상이 농림수산계 고교 교육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농학계 대학 교수들의 학술모임에서도 농학계 대학교육개편은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1995년 6월 6일 농림수산계 교육개편과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배경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농림어업을 이끌어나갈 전문농업경영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농업교육 개편의 내용과 그것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농업계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자.



이영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농업교육개편의 주요내용

먼저 특성화 대학 지원을 살펴보자. 특성화 육성 대상 대학은 국립대로 학과의 통폐합, 학생정원 조정, 지역농어업경영자교육과정 설치 및 자체 연구발전기금조성 등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 시도에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학교이다. 선정방법은 '95년 9월말까지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기술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95년 12월말까지 선정하게 되어 있다. 선정학교에 대한 혜택으로는 700억원의 예산범위내에서 각 대학이 수립한 특성화 계획을 심사, 첨단농어업시설 및 과학기술개발 장비구입비로 대학당 30~40억원을 지원하며 총4천6백90억원의 현장애로 기술 및 첨단 기술연구비중 상당액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패턴 개발과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개발센터 기능과 함께 지역농림어업 종합정보센터의 역할을 맡게된다. 즉 농림어업발전과 현장애로기술 및 첨단과학기술개발의 거점으로 삼는다.

두번째로 한국농업전문대학이 개설된다. 그 목적은 기술농림어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95년에 127억원을 투입,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축산기술연구소내 1만5천5백평의 부지를 마련해 강의실, 영농실습시설, 기숙사 등의 시설공사를 하고 있으며 1996년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받아 식량작물, 채소 등 6개과 2백 40명을 처음으로 모집한다.

세번째, 자영자 양성고등학교를 지정, 중점 지원하려 하고 있다. 농림어업 생산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계농림어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영자양성 고교를 육성하려는 것이다. 1995년 교육부로부터 추천받은 여주자영농고, 홍천농고, 보은농공고, 공주농고, 김제농고, 강진농고, 안동농림고, 사천농고, 서귀농

고의 9개 농고와 3개 수산고교를 대상학교로 선정하였다.

이들 학교는 먼저 학교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는 학교명을 바꾸는 것인데 홍천농업고등학교는 홍천농업경영고등학교로, 안동농림고등학교는 안동농업경영고등학교로, 사천농고는 경남자영고등학교로 개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이들 학교는 현행 학과편제를 지역농림어업 특성에 따라 생산학과 증설 및 학과개편 계획도 가지고 있다. ①홍천농고는 축산과, 원예과, 농업기계과를 농업경영과로, ②보은농공고, 공주농고, 김제농고는 축산과, 원예과를 자영농과로, ③강진농고와 안동농림고, 사천농고는 축산과를 자영축산과로, 원예과를 자영원예과로, ④서귀농고는 원예과를 자영원예과로 변경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는 체계적인 현장실습 교육을 위해 첨단 유리온실, 자동화축사 등 시설 및 장비구입비로 1995년부터 3년간 총 480억원, 수산계 120억원(학교당 40-50억원)을 지원받게된다. 1995년에는 9개 농고에는 1개교당 16억원, 3개 수산고교에는 13억원등 모두 18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원예분야에는 유리온실, 자동온실, 프러그육묘온실, 전자동하우스 조직배양실, 수경재배시설, 난육묘순환실, 저온처리실, 버섯병재배시설 등이 지원된다. 축산분야는 우사, 돈사, 계사 등이 보충되고 종축사, 관리사 등이 추가되며 축분발효실, 분뇨처리장 등이 지원된다. 기타분야로는 기숙사, 식당, 생활교육관, 어학실, 컴퓨터실, 농기계와 중장비 정비실이, 저온저장고(창고)와 농장관리사, 버스 등에 대한 지원이 요청되어 검토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지역농어업과 연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은농공고의 경우 충청북도의 지역특산물인 대추와 버섯재배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면으로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개편계획이 수립되고 투자될 전망이어

서 지역농어업 발전과 연계되고 있다.

### 교육개편, 활성화대책의 의의

전체적으로 이번 개편 방안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부가 아닌 농림수산부가 농림수산계 교육개편과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과거 수십년간 농림수산계 각급 학교 교육은 교육부와 농림수산부 정책의 충분한 지원을 못 받은 사각지대였다. 교육부에서 농림수산계 각급 학교 교육은 이른바 주변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육부내의 농업, 농촌관련 시책이 1명의 연구사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다. 반면 농림수산부는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부의 고유 영역'이라는 부처간의 할거주의에 의하여 농림수산계 교육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는 못하였다. 뒤늦게나마 농림수산부가 농림수산계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개편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둘째 이번의 대책은 과거의 시책과 달리 투자 계획을 수반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 수차례에 걸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에서도 농림수산계 학교에 대한 투자 계획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담당자가 바뀌고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일관성이 없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일부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시책은 일단 농특세라는 확실한 재원을 가진 투자계획이 준비되어 있어 매우 기대가 크다.

### 극복해야 할 개편방안의 한계

그러나 이번 시책의 개편방안이 갖는 몇 가지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첫째,** 농과대학 개편에서 10년간 7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십여개의 대학을 지원하면서 농림수산계 대학교육 개편을 유도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다고 본다.

**둘째,** 한국농업전문대학의 개설과 관련하여 사실 이 학교의 신설에 대하여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당국은 학교설립의 과정에서부터 공개성을 기하는 등 하나의 차질이 없이 일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학교운영을 정상화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영자 양성고등학교의 지정 및 중점 지원과 관련하여 농림수산계 고등학교 단계에서 과연 농어민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한편으로 있음을 고려하여 농림수산계 고등학교가 왜 존재하여야 하는가라는 존재의의부터 검토하여 근본적인 개혁이 되어야 하나 이번 대책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각종 시설투자 지원에서의 문제는 학교 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는데 가능한 이들 학교기본시설 투자는 지방비로 하도록 하고, 투자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 중복투자는 없는가, 현실성은 있는가, 시설투자가 학교발전계획, 학과발전계획, 지역농어업 발전계획과 연관이 큰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기숙사 건립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려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나라 농어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의 하나는 농림수산계 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 영농인의 양성이다. 계속 위축되기만 하는 농림수산계 교육의 일대 전환을 위하여 농림수산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늦은 감이 드나 그 기대는 매우 크다. 이번 대책이 과거 수차례의 시책들을 통하여서도 극복하기 어려웠던 농림수산계 학교 교육의 위축추세를 반전시켜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러기 위하여 교육부, 농림수산계 각급 학교 관련자들의 새로운 각오와 배전의 노력이 기대된다.

### 농의정보

